

新 哲學의 指導 原理

辨證法的 世界の 彼岸 ②

金基錫

『運動』의 現實 構造 이것을 우리들은 단순한 流動, 단순한 轉變으로만 생각해 버려서는 안됩니다. 변하지 않는게 어디잇나 변하지 않는 存在, 변하지 않는 原理란게 어디잇나 모두 변하고 움직이거든 自然이 그러코 歷史가 그러코 文化가 그러코 또 거기에 대한 人間의 思惟마저 그러코, 이미 그 根本態度가 이러매로 오늘의 사람들은 理論이나 實踐에 잇서서 『靜』에 대한 『動』의 優越을 심히 高調 宣揚하고 잇습니다.

運動의 論理에 대한 限定的 論理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오늘의 哲學은 이 限定的 論理란 것이 잇서서 自己를 建設하는 方法, 또 原理에 만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사람들에게 잇서서 運動의 論理가 어떻게 만히 바더드러지고, 또 어떻게 거츨게 把握 解釋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못도를 『運動』에 잇서서 보고 또 보노라고만 하면 그는 그릇된 論理, 그 가난한 思索을 가지고서도 선자리에서 자기가 이 世紀의 가장 새로운 世代에 속한다고 자랑할 수가 잇습니다.

運動의 論理 運動의 論理. 이 단순한 『動』과 함께 『靜』을 생각하는 限定的 論理에로 止揚 되는데 잇서서 진실한 자기에 歸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에 이르러 사람들이 모두를 『運動』에 잇서서 보자고 하면서도 이 『運動』 自體의 根本 構造에 이르러서는 기쁜 反省과 理解에 드러서기를 꺼리고잇지를 안습니까. 進化論과 辨證法과 行動主義, 이것을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이것들은 무론 生物, 實在 또는 現實을 說明하는 한 개의 立場이 되기는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결국 모두를 『運動』에 잇서서 보자는 『타레스』의 思惟 우에 構成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하나 하나가 그 자신의 領野에 잇서서의 運動의 論理의 粉裝, 또는 改裝이 아니겠습니까. 움직이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일에 잇서서 움직인다. 움직이는 것 속에는 움직이지 않는 일이 있다. 一切로 움직이는 存在 속에 움직이지 않는 性格이 있다. 具

體的인 現實的인 運動은 모두 어떤 時間的 存在가 그 자신의 性格을 직히고 고집하는 過程에 잇서서만 展開된다. 이것을 오늘의 運動의 論理는 어떻게 생각하고 또 가르치게 되겠습니까.

앗다 그저 움죽인다고 보면 그만 아닌가. 그저 모두가 변하고 바꾸인다. 이러케 보면 그만 아닌가. 무슨 時間이니 性格이니 할 것 있나. 변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고, 변하지 안흐면서도 변하는 것이거. 이게 어떻게 하는 말인가. 그런 귀찬흔 이야기를 누가 듯기나 한다든가, 이러케 나무라실 분도 계시겠습니까. 하기가 그저 움죽인다고 보아도 조키는 합니다. 그런데 이 움죽임이란 무엇인고, 움죽인다니 무엇이 어떻게 움죽이는고. 움죽이는 것과 움죽이지 아는 것과는 어떤 모양의 聯關을 가지는고. 작고 이러케 뭇고 생각해 드러가는데 『哲學的 理解』란 것이 成立, 또 發見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하기가 성가시다고해서 애당초에 모두를 問題로 하지 않는것은 實在 및 現實에 대한 根源的 理解를 斷念, 또는 拋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흔히 무엇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산이나 바다나 해, 달, 하늘, 별이나, 存在는 모두 어떤 것인 個物에 잇서서 주어집니다. 산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그박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잇겠습니까. 아무것도아닌, 전연 個物의 意味를 가진 것이 아닌 어떤 것이 잇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한에서 그것은 처음부터 『어떤 것』의 意味를 가지지 못합니다. 어떤 것의 意味를 가지지 못하는 한에서 그것은 存在의 世界 속에서 자기를 限定, 또 主張할 길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움죽인다고 보는 것은 이 어떤 것으로서의 存在가 움죽인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떤 것이 주어지 않는 마당에서 움죽임이 자기를 일으킬 길이 잇겠습니까. 이 運動이 본대 存在에 잇서서의 運動이라고 보는 것은 存在 및 運動의 理解에 대한 가장 소중한 根幹이 됩니다. 存在는 아시다시피 時間的 存在가 아니겠습니까. 이 時間에 잇서서 주어지는 것이 存在한 것의 原始的, 또 根源的 限定입니다. 時間을 버서 나서 잇는 것이 잇슬진대, 그것은 벌서 存在가 아니고 存在와 마조서는 것이 아니면 안됩니다. 存在와 마조서서 存在가 그것을 否定하고 그것이 存在를 否定하게 되는 것이 아니면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서 思索의 混亂을 피하기 위하여 存在만을 생각하기로 하고 나아가 이 存在에 잇서서의 運動이 어떤 모양의 構造를 가지게 되는가를 생각해 드러가기로 합니다.

우리들이 바루 아페서 『무엇이 있다』를 생각하지 안헛습니까. 이 『무엇이 있다』는 본대 『무엇인 것이 있다』이요. 또 나아가서 『무엇인 것이 時間에 잇서서 무단히 움죽이고 있다』가 되지 안혀서는 안됩니다. 이제 무엇인 것

이 時間에 잇서서 움죽인다고 해도 그것이 아무러께나 변하는 것이 아니고 어데 가지던지 자기를 직히면서 변하는데서 우리들은 단순한 運動과 구별되는 어느 意味의 連續 가튼 것에 만나게 됩니다. 이 어느 意味의 連續가튼 것을 우리들은 우리들의 術語로 옮겨 性格, 또는 限定이라고 부르려고합니다.